

## 서울시, 벤처기업 대상 세미나 개최...국제인수합병 제시

등록 2023.08.28 06:00:00 | 수정 2023.08.28 07:20:05



[서울=뉴시스]

[서울=뉴시스] 이재은 기자 = 서울시는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인해 정보가 제한적인 중소, 벤처기업에게 '국제인수합병'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.

시는 인베스트서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'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인수합병 거래(크로스보더 딜)를 주제로 한 크로스보더 M&A 세미나'를 오는 3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.

국제인수합병은 일반적인 인수합병보다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지만 목표 해외 시장에 대한 빠른 시장지배력 확보, 해외 자금 조달 및 비용 절감, 원천 기술 확보,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장점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현장에는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 3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매수 의향이 있는 기업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도 운영한다. 국제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장동향과 절차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.

먼저 서울시의 투자 인센티브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, 중소기업 인수합병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.

다음으로 인수합병, 기업공개 등 다양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블룸버그 코리아에서 최신 국제인수합병 현황 및 최신 경향을 분석한다.

이어 삼일회계법인의 국제인수합병 전문가가 국제 인수합병 진행 절차 및 국내 인수합병과의 차이점과 주의사항,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크로스보더 딜 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한다.

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"중소-벤처기업에 자금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기업공개 이외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, 시장의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강화할 것"이라며 "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여 국내 벤처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lje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